

# 생산자·소비자 함께 웃는 '상생의 장'

군산 로컬푸드직매장 5곳  
하루 평균 3300여명 방문  
9월까지 매출 104억 넘겨  
직거래·나눔 행사 등 추진

군산 나운동에 사는 주부 박모 씨(50)는 장을 볼 때마다 대형마트보다 지역 내 로컬푸드 직매장을 더 선호하고 있다.

신선한 야채 등을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다 생산자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생산능가가 당일 출하한 농산물만 취급한다는 점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의 매력을 더 느끼고 있다는 게 박 씨의 설명이다.

지역 내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 찾는 사람들마다 안전하고 신선한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농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27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은 △옥산농협 △군산농협 △동군산농협 △박물관 △경암동점 등 5개소이다.

이들 직매장에 생산 능가 507호가 출하하고 있으며 일평균 3320명의 소비자가 방문하고 있다.

세 부적으로 보면 옥산농협이 1272명, 군산농협 831명, 동군산농협 645명, 박물관 404명, 경암동점



군산지역 한 로컬푸드직매장이 장을 보는 소비자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군산시 제공

16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매출액이 104억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지난해 매출 111억 2500만원 대비 93%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매출현황은 옥산농협이 46억 19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박물관점 25억 6000여만원, 군산농협 14억 9000여만원, 경암동점 11억 4000여만원, 동군산농협 6억 1200여만원 순이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경암동점은 전년 대비 올해 31.3%의 매출 신장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로컬푸드 직매장별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는 것도 소비자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시는 '로컬푸드 농가 및 소

비자 현장체험 사업'을 기존 로컬푸드 출하 가공 업체 방문과 꾸러미 제공 위주의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출하농업인·소비자 그리고 직매장까지 연계할 수 있는 직매장별 특색 있는 사업으로 개설했다.

이의 일환으로 올해는 △어린이 로컬푸드 가족 장보기 및 직거래 행사 △군산쌀 홍보·소비 촉진 우수 고객 사은행사 △로컬푸드 김장 체험 및 지역 나눔 행사 등을 추진했다.

출하농업인들은 이 같은 운영 방식 변화를 통해 사업에 사용·제공·소비되는 농산물이 증가해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면 소비자는 로컬푸드 할인 구매, 선물 수령 등 혜택을 받는 동시

에 지역 먹거리의 중요성과 바른 식문화에 대해 깨닫는 계기도 만들어 가고 있다.

이와함께 로컬푸드 직매장은 외부 방문 행사가 아닌 매장 내 행사 운영으로 활력을 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행사는 지역사회 나눔까지 이어져 1석 4조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왕군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로컬푸드 출하 농업인과 소비자의 연계를 통해 상호 소통을 증진하고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이르고 있다"며 "로컬푸드 직매장이 단순한 먹거리 판매처가 아닌 생산자·소비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상생의 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 전북연합신문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007면 지역

### 군산, 로컬푸드 출하농업인 소비자·직매장 연계 강화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로컬푸드 출하농업인과 소비자의 연계 사업을 통해 상호 소통을 증진하고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켜 호응을 얻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로컬푸드 농가 및 소비자 현장 체험 사업'을 기존 로컬푸드 출하 가공 업체 방문과 꾸러미 제공 위주의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출하농업인, 소비자, 그리고 직매장까지 연계할 수 있는 직매장별 특색 있는 사업으로 개선을 꾀했다.

올해는 ▲어린이 로컬푸드 가족 장보기 및 직거래 행사 ▲군산쌀 홍보·소비 촉진 우수 고객 사은행사 ▲로컬

푸드 김장 체험 및 지역 나눔 행사 등을 진행했다. 시는 출하농업인, 소비자, 직매장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함께하는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출하농업인도 사업방식 변화를 통해 사업에 사용·제공·소비되는 농산물이 증가해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 역시 로컬푸드 할인 구매, 선물 수령 등 혜택을

받고, 동시에 지역 먹거리의 중요성과 바른 식문화에 대해 깨닫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더불어 직매장은 외부 방문 행사가 아닌 매장 내 행사 운영으로 활력을 더하고 홍보 효과를 높였으며, 일부 행사는 지역사회 나눔까지 이어져 1석 4조의 시너지를 창출하며 사업의 의미를 높이고 있다.

군산 송기문 기자 jbskm@naver.com

## 전라매일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007면 지역

### 군산, 로컬푸드 출하농업인 소비자·직매장 연계 강화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로컬푸드 출하 농업인과 소비자의 연계 사업을 통해 상호 소통을 증진하고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켜 호응을 얻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로컬푸드 농가 및 소비자 현장체험 사업'을 기존 로컬푸드 출하 가공 업체 방문과 꾸러미 제공 위주의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출하농업인, 소비자, 그리고 직매장까지 연계할 수 있는 직매장별 특색 있는 사업으로 개선을 꾀했다.

올해는 ▲어린이 로컬푸드 가족 장보기 및 직거래 행사 ▲군산쌀 홍보·소비 촉진 우수 고객 사은행사 ▲로컬푸드 김장 체험 및 지역 나눔 행사 등을 진행했다. 시는 출하농업인, 소비자, 직매장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함께하는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군산로컬푸드복합센터는 출하 농업인과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열고, 인근 유치원에 로컬푸드 장보기 체험 쿠폰을 제공해 가족이 함께 로컬푸드 직매장 장보기에 참여해 큰 호응을 받았다.

/군산=박수현 기자

## 새만금일보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007면 지역

### 군산시 로컬푸드 출하농업인·소비자·직매장 연계 강화

군산시가 로컬푸드 출하 농업인과 소비자의 연계 사업을 통해 상호 소통을 증진하고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켜 호응을 얻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로컬푸드 농가 및 소비자 현장체험 사업'을 기존 로컬푸드 출하 가공 업체 방문과 꾸러미 제공 위주의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출하농업인, 소비자 그리고 직매장까지 연계할 수 있는 직매장별 특색 있는 사업으로 개선을 꾀했다. 올해는 ▲어린이 로컬푸드 가족

장보기 및 직거래 행사 ▲군산쌀 홍보·소비 촉진 우수 고객 사은행사 ▲로컬푸드 김장 체험 및 지역 나눔 행사 등을 진행했다. 시는 출하농업인, 소비자, 직매장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함께하는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군산로컬푸드복합센터는 출하 농업인과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열고 인근 유치원에 로컬푸드 장보기 체험 쿠폰을 제공해 가족이 함께 로컬푸드 직매장 장보기에 참여해 큰 호응을 받았다. /김영일 기자

## 새만금일보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007면 지역

### 군산시, 2025년 2개 공모사업 선정 쾌거

####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박차

군산시가 26일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및 농업 근로자(외국인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2건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지속적인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촌노임 상승 등 농촌인력의 고질적인 문제 해소 △중소가족농 및 귀농귀촌인, 청년창업농 등 다양한 농촌 단기인력(일 단위 일시 사업) 수급 △농가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지난 11월 공모를 신청했다.

특히 공모 선정을 통해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사업 선정을 통해 운영지원금 1억원,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위한 사업비 24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군산시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지원체계 기반을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일단 시는 농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농촌 일자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설을 서두를 예정이다.

장소는 대야면 옛 초산부대내로 지상 2층 규모로 4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내부 시설은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사무실, 휴게공간, 공용주방, 숙소 등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위한 복합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

해마다 군산시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결혼이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22년 7명, '23년 28명, '24년 88명, '25년 250명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원예시설농가, 대규모 식량작물농가 위주 농가상주형(5개월)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본 공모사업을 통해 중소고령농, 귀농귀촌인, 청년창업농 등 시설원예, 노지채소, 과수농가, 축산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일 단위 단기 사역 근로에 대한 인력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김영일 기자

# 군산시, 로컬푸드 출하농업인-소비자 연계 강화

## 어린이 로컬푸드 장보기·군산쌀 홍보·김장 체험 등 프로그램 추진

군산시는 로컬푸드 출하농업인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상호 소통을 증진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군산시는 기존의 로컬푸드 출하 가공업체 방문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출하농업인과 소비자, 직매장이 함께하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진행된 주요 행사로는 어린이 로컬푸드 장보기, 군산쌀 홍보 및 소비 촉진 행사, 김장 체험 등이 있다.

군산로컬푸드복합센터에서는 직거래 장터를 열어 소비자와 농업인이 직접 만나고, 다양한 할인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채왕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로컬

푸드 직매장이 생산자와 소비자,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상생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현재 군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5곳은 507개 농가에서 출하하며, 일평균 3,320명의 소비자가 방문하고 있어 매출이 전년 대비 93%를 기록하고 있다.

/박상만 기자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007면 지역

# 군산, 로컬푸드 농가·소비자 체험 사업 일평균 3320명 방문 매출액 104억원 성과

## 군산시, 로컬푸드 소비자 신뢰도 높인다

군산시는 로컬푸드 출하 농업인과 소비자의 연계 사업을 통해 상호 소통을 증진하고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켜 호응을 얻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로컬푸드 농가 및 소비자 현장체험 사업’을 기존 로컬푸드 출하 가공 업체 방문과 꾸러미 제공 위주의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출하농업인, 소비자, 그리고 직매장까지 연계할 수 있는 직매장별 특색 있는 사업으로 개선을 꾀했다.

올해는 ▲어린이 로컬푸드 가족 장보기 및 직거래 행사 ▲군산쌀 홍보·소비 촉진 우수 고객 사은행사 ▲로컬푸드 김장 체험 및 지역 나눔 행사 등을 진행했다. 시는 출하농업인, 소비자, 직매장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함께하는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실제 군산로컬푸드복합센터는 출하 농업인과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열고, 인근 유치원에 로컬푸드 장보기 체험 쿠폰을 제공해 가족이 함께 로컬푸드 직매장 장보기에 참여해 큰 호응을 받았다.

채왕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로컬푸드 직매장이 단순한 먹거리 판매처가 아닌 생산자·소비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상생의 장이 되도록 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출하농업인과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찬우 기자

군산시가 로컬푸드 출하 농업인과 소비자의 연계 사업을 통해 상호 소통을 증진하고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켜 호응을 얻고 있다.

27일 시는 ‘로컬푸드 농가 및 소비자 현장체험 사업’을 기존 로컬푸드 출하 가공 업체 방문과 꾸러미 제공 위주의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출하농업인, 소비자, 그리고 직매장까지 연계할 수 있는 직매장별 특색 있는 사업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군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5개소는 생산 농가 507호가 출하하고, 일평균 3,320여 명의 소비자가 방문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매출액이 104억 원

을 넘어서 전년 매출 111억 원 대비 93%의 성과를 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 로컬푸드 가족 장보기 및 직거래 행사, 군산쌀 홍보·소비 촉진 우수 고객 사은행사, 로컬푸드 김장 체험 및 지역 나눔 행사 등을 진행했다.

시는 출하농업인, 소비자, 직매장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함께하는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군산로컬푸드복합센터는 출하 농업인과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열고, 인근 유치원에 로컬푸드 장보기 체험 쿠폰을 제공하여 가족이 함께 로컬푸드 직매장 장보기에 참여해 큰 관심을 받았다.

군산=김경희기자

# 군산시, 로컬푸드 출하농업인-소비자 직매장 연계 강화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로컬푸드 출하 농업인과 소비자의 연계 사업을 통해 상호 소통을 증진하고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켜 호응을 얻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로컬푸드 농가 및 소비자 현장 체험 사업’을 기존 로컬푸드 출하 가공업체 방문과 꾸러미 제공 위주의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출하농업인, 소비자,

그리고 직매장까지 연계할 수 있는 직매장별 특색 있는 사업으로 개선을 꾀했다.

올해는 ▲어린이 로컬푸드 가족 장보기 및 직거래 행사 ▲군산쌀 홍보·소비 촉진 우수 고객 사은행사 ▲로컬푸드 김장 체험 및 지역 나눔 행사 등을 진행했다. 시는 출하농업인, 소비자, 직매장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함께하는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